

2011. 12. 19.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#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 협력 -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 -

World Economy in 2012 & Global Economic Cooperation  
:Issues for the Mexican G20 Ahead

- 일 시: 2011년 12월 19일(월) 09:00 ~ 18:10
- 장 소: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(2F)
- 주 관: KDI · 기획재정부

###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#### 세션1. 세계경제의 오늘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

##### 발표 1. 세계 경제의 전망

조슈아 펠먼 IMF 조사연구국 부국장

- 유로지역의 문제는 국가채무 보다는 경제성장률에 있는 것으로 보임.
- 유로지역 PIIGS 국가들의 채무금액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, 이들 재정위기 국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문제

## 발 표 2. 유로존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

김준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

-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경제성장을 하락이 반복되면서 재정 위기가 야기된 측면이 있음.
- 유로지역 국가들 간 경제지표들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.
  -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줄어든 반면 그리스의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 차이는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임.
  - 독일과 GIPS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, 노동비용 등의 차이가 유로존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
- 유로지역의 경제 위기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나, 한국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음.
  - 유로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은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190억 달러의 순 현금 유출을 기록했으나, 경제 펀더멘털의 강화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킴.

### 발 표 3. 세계 경제 위기와 G20의 도전 과제

콜린 브래드포드 브루킹스연구소 및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(CIGI) 선임연구위원

- 유로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상  
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함.
  -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현재 긴축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,  
미국과 영국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유로위기로 금융시장의 어려움  
을 겪고 있음.
  
- G20는 녹색 성장(Green growth)과 리더십 신용도 제고를 위해  
노력해야 할 것임.
  - 녹색 성장(Green growth) 기술은 GDP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  
며, 특히 노동 생산력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  - G7이나 G8보다 더 공개적인 21세기의 G20는 리더들의 리더십 신용  
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## 토 론 1. 요이치 네모토 AMRO(아세안+3 거시경제감시기구) 고문

-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ASEAN+3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이어 상승하는 추세
  - 일본을 제외한 ASEAN+3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3/4분기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, 이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.
- 유로경제 위기의 유출효과(spillover effect)는 대부분 무역과 금융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  -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, 은행들은 유로금융위기로 인해 국제금융 시장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것임.

## 토 론 2.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- 유로경제 위기는 현재 재정위기, 독립적 재정정책과 내부 불균형에 기인
- 유로 재정위기와 관련해 정부, 은행 및 금융기관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비하기 때문에 2008년의 위기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, 경제성장의 잠재능력은 부정적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.
- 재정 위기는 몇몇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,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므로, G20의 관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## 토 론 3. 알렌 알렉산드로프 토론토대학교 몽크국제외교학교 실장

- 유로지역의 경제위기는 G20에서가 아닌 유로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, G20는 위기관리 보다는 단기 전략 수립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#### 토 론 4. 임원혁 KDI 연구위원

- 유로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입국 간 가격 생산성 격차 감소와 단일 통화 유지를 통해 경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  
- 경제적, 정치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, 도덕적 해이 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  - 구조조정은 재정불균형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경제 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.